

중세시대의 정보혁명 일으킨 구텐베르크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1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인쇄술은 동양에서 먼저 발달했지만, 15세기 이후에는 서양에서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지식의 확산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서양에 일찍 자리잡은 데 있다. 이와 함께 언어표기방법이 동양에 비해 훨씬 간단했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서양이 동양을 앞지를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16세기 말에 로마를 방문한 이방인이 어떤 책방에 들러 주인에게 말한다.

“나는 아레티노의 작품을 찾습니다.”

“이 줄 맨 끝 반대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만,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과 글 모두 금지됐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이상한 방식으로 겨안고 있는 것은 추문을 낳게 되고 종교 재판소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는 폴라 핀들렌이 《포르노그래피의 발명》에서 소개한 《영국인을 위한 이탈리아어 회화교본》에 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 예문에서 책은 글만이 아니라 그림 때문에도 금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속도로 전파된 금서

시인 피에트로 아레티노(1492~1556)는 아레초에서 태어났다. 그는 교황이 팔도록 허가한 면벌증을 풍자한 시를 지은 탓에 고향에서 쫓겨났다. 그는 로마로 가서 명민함과 재치를 증명해 교황 레오 10세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그는 악의에 찬 풍자시를 써서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런데 1524년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는 화가 율리우스 로마누스가 그린 16가지 성교체위를 판화로 제작해 로마에 유통시켰다. 이 자유분방한 그림이 사회적인 물의를 빚게 되자 교황은 마르칸토니오를 구금했다. 아레티노는 레오 10세의 사촌이며 당시 교황인 클레멘트 7세에게 간청해 판화가를 석방시켜 줬다. 그리고는 1525년 판화를 설명하는 방식의 〈14행 시〉(소네트)를 지어 출판했다. 이것이 아레티노의 작품이 나오게 된 내력이다.

아레티노의 시는 그림보다 더욱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에 많은 물의를 빚었으며, 그 때문에 시인은 로마를 떠나야 했다. 그는 1527년부터 베네치아에 정착했다. 거기서 그는 여전히 ‘군주들의 채찍’ 노릇을 했다. 마음대로 펜을 휘둘러 사람들을 놀려댔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은 위의 대화 내용처럼 책방에서 구할 수 없었던가? 그렇지 않다.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실로 정보의 확산속도가 1세기 전보다 훨씬 빨라진 시대에 그는 살고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말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영국인은 베네치아에서 아레티노의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

다. 그 가운데 존 울프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아레티노의 책을 영국에서 출판했다. 당시 영국은 로마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어서, 비교적 출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인쇄술이 발달한 지 1세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인쇄물을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넓은 뜻으로 봐서, 인쇄술이란 똑같은 내용을 ‘대량생산’ 하려는 목적으로 종이, 천, 금속 또는 그밖의 알맞는 재료 위에 글, 그림이나 도안을 박아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인쇄술은 동양에서 먼저 발달했지만, 15세기 이후에는 서양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 이유야 많지만, 무엇보다도 서양은 지식의 확산을 바라는 분위기에 더욱 젖었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또한 서양 언어의 표기 방법이 우리말 같이 받침이 있는 소리글보다 간단한 것도 인쇄술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중세시대의 ‘벤처 기업가’ 구텐베르크

서양의 활판인쇄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다. 그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벤처 기업가’였다. 독일 마인츠의 금은세공사 집안에서 1400년 이전에 태어난 그는 1434년부터 1444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무르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도 연구했던 것 같다. 그는 투자가를 설득, 1450년까지는 새로운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요한 푸스트는 구텐베르크에게 800길더를 꾸렸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은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커녕 또다시 투자를 요구했다. 푸스트는 2년 뒤에 다시 800길더를 투자했으며, 둘의 관계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푸스트는 즉시 이윤을 얻기를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구텐베르크는 기술을 좀더 완벽하게 발전시키려고 노력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푸스트는 소송을 걸었고 이겼다. 이 소송에 관한 서류의 일부는 1455년 11월 6일에 나온 것으로서 <헬마스퍼거 공증문서>(Helmaspergerisches Notariatsinstrument)라는 이름으로 괴팅겐 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구텐베르크는 이자까지 합쳐서 2020길더를 푸스트에게 갚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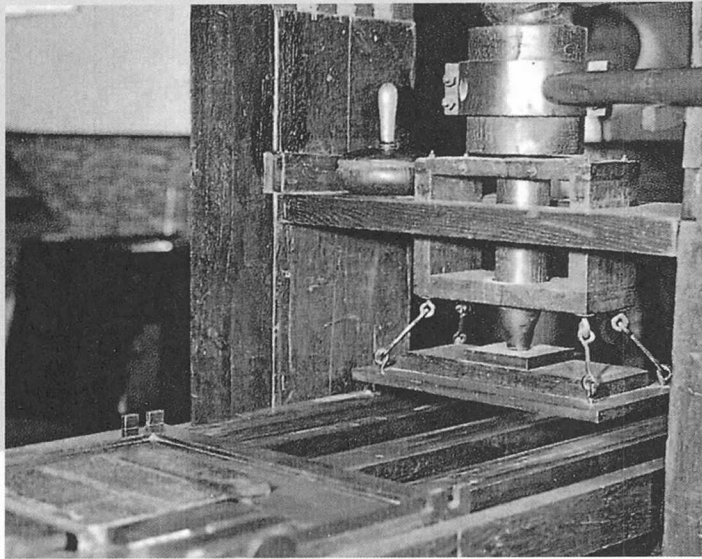
구텐베르크가 소송에서 지고 나서 완전히 망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1456년에 제본을 마친 <42줄 성경>으로 성공을 거뒀고, 1460년대에도 인쇄소를 경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구텐베르크가 이 <성경>을 160권에 서 180권 가량 찍어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30권을 송아지 가죽종이에 찍었다. 1465쪽이나 되는 <성경>의 각 쪽마다 위에서 아래로 두 단으로 조판하기 위해 대략 300가지의 활자 335만 개가 필요했다. 이 책에는 출판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제본업자 하인리히 크레머가 남긴 기록에 따라 <42줄 성경> 가운데 일부가 1456년 8월에 완성됐음을 알 수 있다. 식자공 6명이 1454년까지 약 2년 동안 작업한 뒤, 수사본처럼 문자 장식가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유럽에서 최초로 인쇄인의 이름을 담은 책은 마인츠에서 1457년 8월 14일 요한 푸스트와 페터 쉐퍼가 찍어낸 화려한 <시편>이었다. 푸스트는 소송에서 이긴 뒤 구텐베르크의 <성경>과 <시편>을 찍을 활자와 그밖의 인쇄기계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편>에 푸스트와 사위의 이름이 담긴 이유와 심지어 <42줄 성경>을 인쇄한 사람으로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42줄 성경>과 달리 <시편>은 완전히 활자만으로 박은 최초의 책이기도 하다.

끝내 교수형에 처해진 사보나롤라

1450년대부터 1500년 사이 인쇄술은 유럽으로 널리 퍼졌다. 이 시기를 인쇄술의 요람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출판돼 현존하는 35,000부 정도의 책을 요람이라는 뜻의 라틴말 '인쿠나블라'(incunabula)라고 한다. 이 기간에만 벌써 6000종이 나왔다. 인쇄술의 눈부신 성공을 베네



구텐베르크는 서구 인쇄사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으나 투자가들과의 갈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사진은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평압식 인쇄기. (구텐베르크박물관 소장)

1450년대부터 1500년 사이 인쇄술은 유럽으로 널리 퍼졌다.

이 기간에만 6000종의

책이 나와 가히

'인쇄술의 요람기'라

할 만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발흥하는 시대에는

문화적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치아만큼 잘 보여주는 곳은 없다. 1469년에 첫 인쇄소가 생긴 뒤, 1500년까지 417개 인쇄소가 있었고, 1495~1497년 사이 유럽 전역에서 간행된 인쇄물의 4분의 1을 이 도시에서 찍어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는 시대에 문화적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었다. 인쿠나블라 시대와 생애가 일치하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1452~1498)는 르네상스의 문화적 분위기에 가장 예민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이었다. 그는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는 피렌체에서 당대 사람들의 죄를 집중공격했고, 심지어 지배자 집안의 타락과 귀족 추종자들까지 공공연히 공격했다.

페라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보나롤라는 1474년 볼로냐의 도미니쿠스파 성직자가 됐

고, 1482년 피렌체의 도미니쿠스파 산 마르코 수도원에 설교사로 부임했다. 그는 1493년 토스카나의 도미니쿠스 교단 개혁을 주창해 교황의 신임을 얻은 뒤,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의 설교를 했다.

그는 프랑스가 유럽의 지배세력으로 떠오를 것을 예언했고, 실제로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략했을 때, 그 힘을 이용해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을 배제하고 공화정을 수립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천재적인 설교사였지만, 지나칠 정도로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에, 교황 알렉산더 6세까지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피렌체를 그리스도교 국가의 모범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그는 안팎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1495년 그는 이단 혐의로 로마에 소환됐지만 가지 않았다. 교황은 그를 파문했고, 그는 반발했다. 그는 사치와 쾌락의 상징을 닦치는 대로 불에 집어넣었다. 그가 몰락하기 한해 전인 1497년 오비디우스·프로페르티우스·보카치오의 작품을 포함한 고전을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단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498년 5월 23일 교수형을 당한 뒤 자신이 쓴 글, 설교집, 논문, 소책자와 함께 불 속에 던져졌다. 이처럼 금서는 권력의 거울이다.●